

성모님 탄생 축일인 9월 8일을 기하여 올 가을 흥미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북미지역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는 분별 나눔의 해 (분별: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알아보는 안목)에 마리아니스트 평신도와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마리아니스트 평신도가 마리아니스트 은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북미 전역의 다른 평신도와 의도적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로와의 협력과 다른 지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리아니스트 정신을 살리고 그 활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마리아니스트는 계속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분별에 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대의 징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어떻게 은사의 삶을 살 것인지와 선교적 소명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별 나눔의 해는 공동체 내 개개인은 물론 지역이나 세계 공동체 등 집단을 위한 분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북미지역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는 일반적인 토론자료로 사용할 안내 질문과 행동을 포함하는 다섯 개의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 Zoom 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더 큰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이해와 성장을 공유할 기회가 있을 것이며 다른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또는 공동체와의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와 성찰을 공유함으로써, 북미지역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에게 집단적인 목표를 확인하고 마리아니스트 평신도가 마리아니스트 가족 내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별 나눔의 해는 모두가 마리아니스트 은사로 영감을 받아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많은 마리아니스트 평신도와 공동체가 올해 시작되는 분별 나눔의 해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제안한 분별 나눔의 해 시작일은 9월 8일이며 8월 말경 받은 편지함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1일

“엘살토의 성모님”

(타쿵가의 값진 진주)

에쿠아도르 라타쿵가

교구 성모 성지

에콰도르 기독교와 엘살토 성모님의 성지 위치에 대한 소개

에콰도르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든 1492년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국가와 대륙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된 19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국가적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신자 (약 79%)이며, 전국적으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대중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에콰도르의 산지에서 만날 수 있는 성소와 유구한 역사의 성모 성지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엘살토 성모님의 성지는 남미대륙 에콰도르의 안데스 지역 북쪽 중앙에 있는 라타콩가에 위치합니다. 라타콩가는 코토팍시 지방에 속하며 동명의 화산이 근처에 있습니다. 고도는 해발 2,750 미터 [9,022 피트]에 지진이 발생하는 도시이며, 안데스의 추운 기후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균 12°C [54°F]입니다.

엘살토 교구 성모 성지의 역사 (엘살토의 순례자. 타콩가의 값진 진주)

17세기 초, 도미니카 출신인 베돈 신부는 복음을 전파하고 묵주기도의 성모님을 공경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1618년 코토팍시 화산 기슭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의자에 앉아 양들의 옆에 있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성모님을 묘사한 아름다운 그림을 돌 위에 그렸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휴식중인 성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몇 해 동안 라타콩가가 위치한 에콰도르 중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여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1698년, "휴식중인 성모님"이 그려진 돌이 사라졌고 70년 후에 다시 발견되었으므로 이후 사람들이 돌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데, 그 중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를 관통하는 야나야쿠라는 강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강을 깽충깽충 뛰어 건너 다녔고, 안전을 위해 평평한 돌로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다리 역할을 하던 돌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돌을 들어 올렸는데, 그 앞면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신자들은 성모님의 그림이 그려진 돌을 가까운 곳으로 옮겼고, 이를 기리기 위해 예배당을 지었고 이를 "엘살토의 순례자, 타콩가의 값진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1797년 1월 21일로부터 1년 후, 지역주민들은 "지진에 대한 수호성인"을 위한 맹세를 하고 매년 2월 4일, 성모님이 하느님의 노여움을 달래주시는 중재자임을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 성모님 축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엘살토"라고 불렸던 같은 장소에 다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고 코토팍시 화산의 지진과 분화가 있을 때마다 라타콩가 시는 "지진에 대한 수호성인"이신 "엘살토의 성모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한 팔로 예수님을 안고 다른 팔로 세례 요한을 안고 계시 듯 성모님의 자녀에 대한 모성보호를 발현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성모님의 많은 자녀들은 성모 성지를 방문하여 조용히 촛불을 바치고 어머니의 전구로 특별한 은총을 청하거나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라타콩가에의 마리아니스트 – 에쿠아도르와 교구 성모 성지 "엘살토의 성모님"

1979년 11월 23일, 라타콩가 교구의 마리오 루아즈 나바스 주교의 소명과 요청에 따라, 마리아니스트 수사님들은 새로 창립된 에르마노 교구학원을 인수하고 이후 '11월 11일의 승리'라는 교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교구의 요청에 따라 수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교구로 기능했던 엘살토의 성모님의 교구도 맡게 되었고 그때 까지만 해도 성모님과 관련된 이 교구만의 성격에 대해 크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점차적으로 돌에 그려진 그림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리아니스트로서 교구 공동체와 영적으로 동행하기 시작했고, 신자들은 신앙과 열정으로 엘살토의 성모님의 현신을 통해 성모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루이즈 주교는 보편교회에서 성모님의 해 (1987-1988)를 기념하여 이를 교구 성모 성지로 선언했습니다.

성지에서 성모님은 매일, 특히 축일에 성지 앞 광장을 채우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이자 보호자였습니다. 1983년 이후 성모님은 성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광장에서 판초 하나로 밤 추위를 견디며 밤을 보냈던 원주민, 짐꾼, 거지들을 맞이할 '카사 캄페시나 (농민의 집)' 건설 사업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5년 1월 31일에 있었던 에콰도르 원주민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념하여 카사 캄페시나가 건립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건설은 1988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니스트들은 성모 성지에서 약 10년 동안 봉사 후 철수하였고, 현재는 교구사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현재 마리아니스트 수사님들은 카사 캄페시나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며, 마리아니스트 수녀님과 평신도 마리아니스트 공동체들과 함께 에르마노 미구엘 교구학원에서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는 젊었을 때 마리아니스트와 협력한 "엘살토"의 이전 교리교사들 (현재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에게 성지 관리를 맡기게 되었고, 이들은 마리아니스트 영성으로 엘살토의 성모님을 공경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성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이 성지 그림의 사진을 찍어다가 집에 놓고 묵주기도를 드리는 라타콩가 교구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과 세계 다른 곳에도 알려지게 되어 성모님의 모성과 보호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고 이로써 "엘살토의 순례자: 지진에 대한 수호성인"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도지향

엘살토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기도합시다.

가) 자연재해 상황과 삶의 터전에 관하여

"모든 피조물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로 애정과 감탄으로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청원: 저희가 저희 자신의 행동, 특히 모든 이들의 집인 지구에 대한 행동과 그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알아보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이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모든 나라를 재해로부터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모두: "엘살토의 동정녀이신 성모님에게 영광,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게 영광,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인도 하소서."

나)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평화를 위해

"인간적 사회적 악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환경적 악화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청원: 형제 자매들에게 지은 죄와, 지키고 나누어야 할 당신의 선물인 평화를 잊은 죄를 용서해주소서. 지난 해 겪었던 상황에 대해 라틴 아메리카를 주님께 맡기오며 또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	--

다)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삶과 신앙

"성모님 없는 기독교인은 고아와 같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고아와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두 여인, 두 어머니, 두 동정녀, 즉 교회와 하느님의 어머니를	청원: 우리 어머니, 성모님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당신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도록 도와 주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는 일에 한 가족으로 일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	---

<p>필요로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p> <p>"언제나 성모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샤미나드 신부님)</p>	<p>모두: "엘살토의 동정녀이신 성모님에게 영광,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게 영광,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인도 하소서."</p>
---	--

라) 마리아니스트 가족에 대한 소명

<p>"생각하지 못한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등잔에 기름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지체없이 사랑으로 따르게 하소서 " (아델 수녀님)</p>	<p>지향: 각자 할 일을 발견하고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없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지부를 위해 풍성하고 거룩한 성소를 일으키시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p> <p>모두: "엘살토의 동정녀이신 성모님에게 영광,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게 영광,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인도 하소서."</p>
---	--

"엘살토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저희 가운데 하느님이 자리하게 하신
동정녀이자 어머니신 성모님,
친절로 저희를 돌봐 주시고,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시고,
저희를 이기심에서 구해 내시고,
저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어
정의와 형제애, 그리고 평화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무염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